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성정혜¹⁾ 김춘경²⁾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조사의 9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잠재평균분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아의 아버지 교육열은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키지만 여아의 아버지 교육열은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아에 비해 여아의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빠르게 변해가며 무한한 경쟁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영향력과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후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주제어: 부모의 교육열,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다집단 분석

I.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녀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부모가 보이는 관심과 기대는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부모가

* 본 논문은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18.11.23.)에서 발표된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외래교수

2)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자녀에게 보이는 기대와 관심의 수준에 따라 자녀의 성격형성과 정서적 측면, 지적발달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화와 여성의 교육기회 및 취업 기회 확대, 교육수요의 증가 등은 자녀의 가치로운 삶에 대한 부모의 생각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는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교육열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열은 학생 자신이 교육받고자 하는 욕구라기보다 자녀의 성공 혹은 출세를 위해 더 나은 학력과 학벌을 얻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와 열망을 의미한다(심미옥, 2017).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의 높은 학업성과 성취를 부모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 경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안정된 직업, 그리고 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높은 지위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교육에 대한 부모 열망의 증가는 자녀에게 보다 많은 교육을 제공하면서 정상 수준을 넘어선 학력 및 학벌을 쟁취하려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에게 학교의 교육과정 이외의 보다 많은 교육을 제공하게 되고, 연령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을 강요하게 된다. 통계청(2019)에서 조사한 학교급에 따른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82.5%, 중학교 69.6%, 고등학교 58.5%, 일반고 65.2%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초등학생이 6.5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이 부모의 교육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은 입시위주의 교육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자녀의 인성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계속적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는 등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많은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교육열이 대부분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거나 자녀의 교육에 대해 아버지의 참여가 수동적임을 보여주었다. 나운경과 태희원, 장윤자(2007)는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어머니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계획에 침묵으로 지지하고, 자녀의 성적을 점검하는 평가자로만 개입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의 이유로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자녀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박지은과 이주아, 정혜민, 최나야(2018)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양육에 대한 참여가 아동기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자녀 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아버지의 교육열 또한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기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화되고 있는 부모의 교육열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고려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아동기에는 가정에서 벗어나 학교로부터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로, 아동의 학교적응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희은·문수백, 2011). 이 시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려는 정신적인 욕구가 강한 발달단계에 있는 과정으로, 학교생활의 적응을 통한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의 훈련은 조화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측면과 자신의 성장을 위한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중요하다(이순아·임선아, 2019).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대인관계에서의 소통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초래되어 중·고등학교 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성인기의 사회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이태영·심혜숙, 2011). 즉,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가의 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정운·이경아, 2004).

하지만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와 교육열로 인해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율성을 통제하게 되면 아동은 또래관계 및 학업수행, 학교생활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Barger, Kim, Kuncel, & Pomerantz, 2019). 이유경(2016)은 자녀의 사회적 성공과 관련된 능력과 학업 및 진학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과잉양육을 하게 되어 아동의 학교적응을 저해한다고 하였으며, 윤소정과 김진옥(2016)은 초등학교 이전 시기의 사교육 경험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높은 기대수준과 발달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사교육의 경험이 자녀의 학교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모의 교육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학교부적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교육열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학교생활적응을 다룬 연구(김종운·최미숙, 2011; 김홍석·심혜숙, 2009; 이수연·황혜정, 2014; 차종천·오병돈, 2012; Anderson & Minke, 2007)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를 학교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모의 기대를 파악함에 있어 협소한 시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의 학교적응뿐 아니라 정서적·행동적 발달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은진(2015)은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녀를 또래들과 비교하는 행위가 청소년들의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권지영(2016)은 부모로부터 자신이 수행할 수 없는 무리한 학업적 요구를 받게 되는 자녀의 경우, 역할 갈등에 빠지게 되어 이에 대항하는 행동으로 비행이나 공격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높은 교육열은 아동기 자녀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내재화와 외현화

를 각각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학교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염정원·조한익, 2016). 아동기는 학교에서 대인관계의 경험을 기초로 신체적·정서적·인지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이태상, 2013).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처럼 증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아 쉽게 간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중재가 없으면 심각한 학교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부적응을 초래하며(우유라·노충래, 2014), 과잉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주의력 결핍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경일,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의 결과변수이자 학교적응의 원인변수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교육열은 아동의 학교적응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과잉된 교육열은 아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존중과 수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을 낮추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게 되고, 무기력함과 이탈적 행동을 보이게 되면서 이후 정서적·행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홍혜선(2012)은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진경과 김혜연(2013)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지와 자신의 행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으므로 정신의 건강한 발달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경남·김정미, 2019).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자아존중감이 필요하며, 아동기 이후 학교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아동이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아존중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기에는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유·아동기에는 여아의 발달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이는 학습준비능력에서도 유의

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조경진·안선희, 2015). 하지만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학업에 대한 준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 성별에 따른 각 영역별 발달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지원체계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초래하게 된다(이수현·황혜정, 2014). 이에 부모들은 초등학교에 진학 이후 여아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남아에게 더 많은 학습 자료를 제공하려 하고 높은 교육열 수준을 보이게 된다. 박찬호와 황명환(2019)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관여하는 정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준거와 타인의 평가에 의해 형성되게 되는데(Magro, Utesch, Dreiskämper, & Wagner, 2019), 가정이나 학교, 미디어 등에서 여아에게는 대인관계적인 측면과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남아에게는 경쟁적이고 독립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최진아·성지현, 2018)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제희선과 이강훈(2019)의 연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므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아동기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서는 김은설(2018)의 연구에서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전이되면서 적응능력이 남아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는 여아의 경우 학교적응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지영과 양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정서지능의 발달 속도가 빨라 학교적응에서 여아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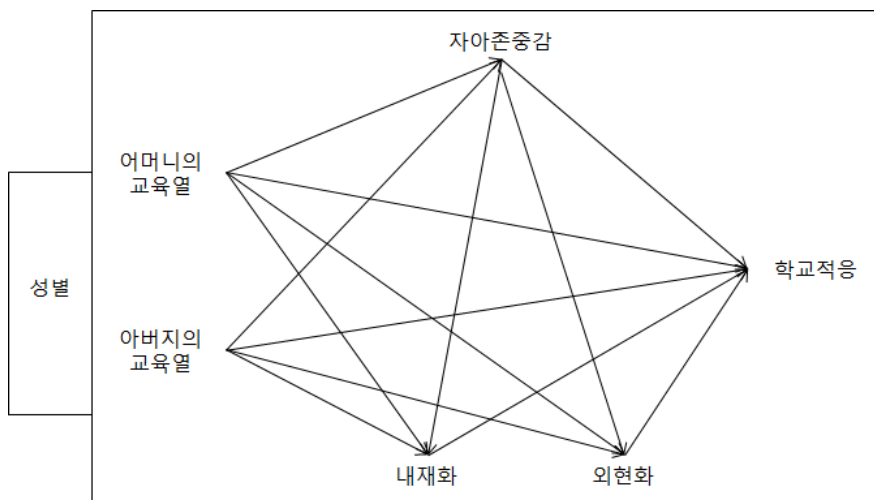
또한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까지는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김준호·김은경, 1995). 하지만 2000년도 이후에는 여학생들의 문제행동 출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장연심·조아미, 2007), 전체적인 문제행동의 비율에서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문제행동을 정서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비행, 공격성, 일탈 등의 행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여학생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백승영·이승희, 2014)

종합하자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부모의 교육열과 외현화 문제를 보이며, 여아는 남아보다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 학교적응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각 집단 간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잠재평균분석은 관측변수들 간의 측정오차를 고려한 잠재변수 간의 평균비교를 위한 분석방법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 다집단 분석은 둘 이상의 집단을 분석하여 모델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경로계수의 크기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차이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0세 유아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 9차년도(2016년)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 중 9차(2016)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026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초등학교 2학년(9살)에 재학 중인 2016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남아 533명(51.9%), 여아 493명(48.1%)으로 총 1,02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가. 부모의 교육열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열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현주와 이재분, 이해영(2003)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원이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교육열 척도의 하위요인은 직접지도 및 감독 관리, 정보수집, 교육 분위기 제공, 친구관계에서 성적 중시, 타인지향 정도, 인성함양 배려, 공부시간 확보노력, 건강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화(1992)의 교육열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직접적 교육열(직접지도 및 감독 관리, 친구관계에서 성적 중시, 타인지향 정도)과 간접적 교육열(정보수집, 교육 분위기 제공, 인성함양 배려, 공부시간 확보노력, 건강관리)로 분류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어머니 .752(직접적 교육열: .701, 간접적 교육열: .689), 아버지 .818(직접적 교육열: .795, 간접적 교육열: .746)로 나타났다.

나.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RSE(Rosenberg's Self-Esteem Scale)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원이 아동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로 축소하고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Hau와 Marsh(2004)에 따르면 측정문항을 모두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자료의 다변량정규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얻기 위해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의 측정변수에 대한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통해 자존감1과 자존감2라는 2개의 꾸러미변수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751(자존감1: .714, 자존감2: .703)로 나타났다.

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Goodman(1997)이 개발한 강점/난점(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원이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강점/난점 척도의 하위요인은 내재화(정서증상, 또래문제), 외현화(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친사회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은 제외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7번, 11번, 14번, 21번, 25번 문항을 역채점하여 평균값이 높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내재화 .782, 외현화 .852로 나타났다.

라.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타당화한 초등학교 일학년용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원이 수정·보완한 척도이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는 .968(학교생활적응 .957, 학업수행적응 .939, 또래적응 .920, 교사적응 .813)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 연구가설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여 전체값과 하위요인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Cronbach's α 는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이용할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한 모든 반분 신뢰도를 구하고 이들의 평균치를 산출한 값이다(강병서·김계수, 2013).

둘째, 잠재변인의 타당화를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추정치를 확인하였다.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2 값은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이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Hair와 Black, Babin, Anderson(2006)이 추천한 TLI와 CF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CFI는 부합도 지수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모형 적합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문수백, 2010). TLI와 CFI가 .9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 지수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음, .08이하이면 양호, .1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인 것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셋째, 아동의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검증하고, 주요변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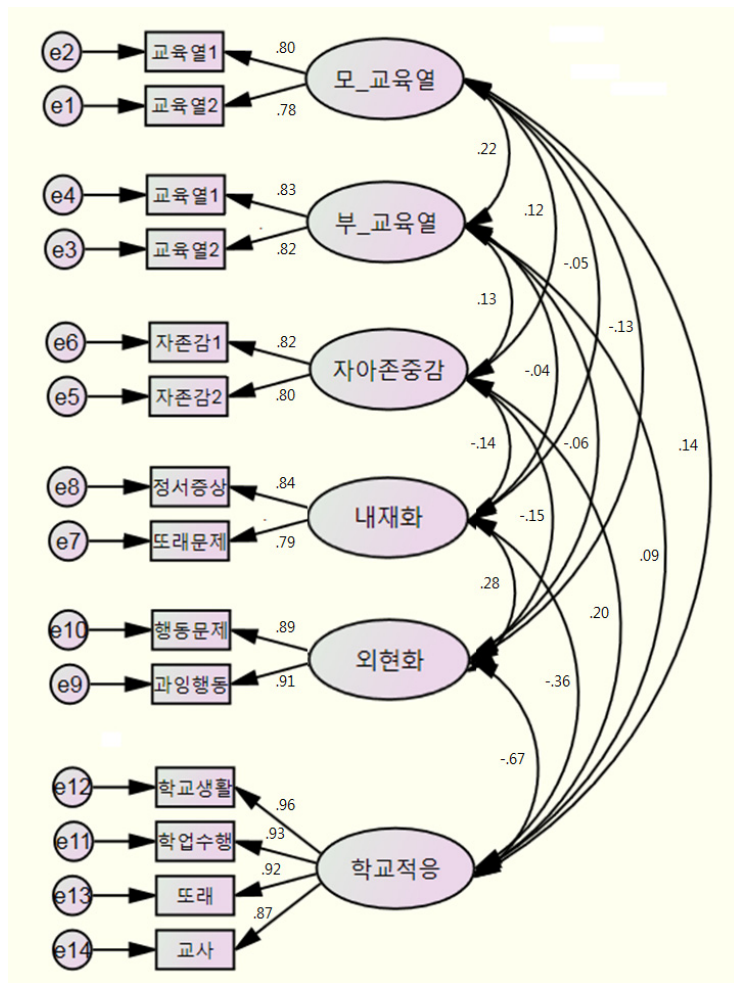
넷째,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분석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LI=.920, CFI=.948, RMSEA=.062로 나타나 이

러한 적합도 기준을 토대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 모수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85이하이면 변별타당도가 존재하며, 요인부하량이 평균 .05이상은 되어야 수렴타당도가 존재한다는 문수백(2009)의 기준에 근거하여 살펴본 결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결과

2. 아동의 성별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외현화, 학교적응 변인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360.592	118	.910	.941	.049
모형2: 측정동일성	370.485	126	.915	.941	.048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422.921	134	.905	.930	.051
모형4: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동일성	456.660	140	.902	.924	.052

먼저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저모형(모형1)의 적합도는 두 집단 모두 만족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적재치를 아동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에 동일하게 부여한 모형으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기저모형의 적합도와 거의 동일하였다. 측정동일성의 검증을 위해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 값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χ^2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므로 [$\chi^2(df=8)=19.893, p<.05$], χ^2 값의 차이에 의한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TLI와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로, 측정동일성을 가한 모델이 형태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에 비해 지수가 나빠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따라서 모형2의 측정동일성 모델은 성립되었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기에 다음으로 절편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모형3은 각 측정 변인의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절편동일성 모형으로 모형2와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χ^2 값의 차이는 유의하므로 [$\Delta\chi^2(df=8)=52.436, p<.001$] χ^2 값의 차이에 의한 절편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모형 3의 측정 및 절편동일성 모델 또한 성립되었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에서 측정 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관찰된 평균 차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평균은 효과크기를 통해서 일반적 측정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제시할 수 있다. Cohen(1988)의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

한 경우에 공통의 표준편차를 적용하므로 요인 분산 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된 모형4의 적합도를 모형3과 비교한 결과, χ^2 값의 차이는 유의하므로 $[\Delta\chi^2(df=6)=33.739, p<.001]$ χ^2 값의 차이에 의한 요인분산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모형 4의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동일성 모델이 성립되어 효과크기 값은 공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Cohen(1988)의 효과크기(d) 기준에 따르면 .2이하이면 작은 것으로, .5이면 중간 수준으로, .8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남아와 여아 집단의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변인에 대한 아동의 성별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모형	남아	여아	p	효과크기(d)
모_교육열	0	.041	.078	-
부_교육열	0	-.056	.039	-.417
자아존중감	0	.137	.001	1.281
내재화 문제	0	-.027	.157	-
외현화 문제	0	-.344	.001	-1.782
학교적응	0	.632	.001	.916

그 결과, 여아 집단은 남아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교육열과 외현화 문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Cohen의 효과크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열은 중간 수준의 평균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은 매우 높은 수준의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교육열과 내재화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 영향력의 차이검증에서 어머니의 교육열과 내재화 문제를 제외하고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구조관계

측정모형 동일성 검증을 통해 아버지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이 아동의 성별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chi^2(df=58)=139.015, TLI=.963, CFI=.976, RMSEA=.041]$, 아동의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모수 추정치(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수			남아	여아
아버지 교육열	→	자아존중감	.191(.213)*	.164(.191)*
아버지 교육열	→	외현화	.157(.232)*	-.062(-.156)*
자아존중감	→	외현화	-.141(-.226)*	-.107(-.231)*
아버지 교육열	→	학교적응	-.053(-.022)	.019(.009)
자아존중감	→	학교적응	.216(.092)*	.265(.114)*
외현화	→	학교적응	-3.459(-.826)*	-4.169(-.831)*

* $p < .05$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학교 적응에는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아졌고,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아졌으며,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 분석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6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6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집단 간 등가제약).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다($\chi^2(df=6)=25.032$, TLI=.937, CFI=.960).

〈표 4〉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델들 간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			χ^2	Δdf	$\Delta \chi^2$	ΔTLI	ΔCFI
아버지 교육열	→	자아존중감	176.856	1	.001	.002	.000
아버지 교육열	→	외현화	193.940	1	17.085*	-.003	-.001
아버지 교육열	→	학교적응	181.753	1	4.901*	-.001	.000
자아존중감	→	외현화	177.534	1	0.679	.001	.000
자아존중감	→	학교적응	176.858	1	.003	.002	.000
외현화	→	학교적응	181.115	1	4.260*	.001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201.887	6	25.032*	-.004	-.002

* $p < .05$

〈표 4〉를 통해 살펴보면,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경로 $[\chi^2(df=1)=17.085, p<.05]$ 와 아버지의 교육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 $[\chi^2(df=1)=4.901, p<.05]$,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 $[\chi^2(df=1)=4.260, p<.05]$ 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3가지 경로 중 〈표 4〉에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최종경로는 아버지의 교육열에서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와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성별에 따라 2가지 경로에서의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아 집단이 남아 집단에 비해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며,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결과를 토대로 집단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차이를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교육열과 외현화 문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욱 높게 나타나 학교적응도 더 잘 한다는 유복귀희(2003)의 연구결과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선택이 달라지며, 아들에게 더 높은 강도의 교육을 시키게 한다는 David와 Ball, Davies, Reay(2003)의 연구결과, 아동의 외현

화 문제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Karreman와 Van Tuijl, Van Aken, Deković(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Tremblay(200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인지적·정서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 있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기표상을 형성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회화능력이 향상되어 학교 내에서도 적응을 남아보다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채진영과 권혜진(2010)의 연구결과에서 이전 세대 부자간의 관계가 다음 세대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과거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아들 위주의 생활과 남자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아들이 자신의 다음 세대로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권력과 명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아버지의 요구는 학력이 일자리 채용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상황과 맞물려 아들에게 더 높은 학력을 가지도록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고, 이는 높은 수준의 교육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교육열과 내재화 문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조혜미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점과 독립성이 낮은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져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자녀를 많이 출산하여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아에게 보다 높은 학력을 요구하였을지라도 최근에는 자녀의 수가 많지 않아 성별 구분 없이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학업에 대한 억압이나 통제, 간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루어지는 일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 친밀함의 표현으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열은 대부분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직접 측정한 것으로 자녀에 대한 자신의 교육열을 적절한 수준으로 체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내재화 문제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아동의 발달 미숙으로 인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아동의 성별이라는 개인적인 특성이 아닌 아동기라는 발달적 특성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의 특성 상 부모와의 관

계를 중요시 하는 시기로, 부모의 교육적 기대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는 아동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절한 교육열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아졌고,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행복한 삶과 정신건강과 긍정적인 적응과 연관되고, 낮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야기한다는 Ybrandt와 Armelius(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은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얻게 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지식으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Coopersmith, 1981).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감소시키기 위해 문제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 입학한 만 8세 아동의 외현화 문제가 높을수록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eiley와 Bates, Dodge, Pettit(200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으로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외현화 문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아졌으나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대를 하게 되면, 다투기를 잘 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자주 보이게 된다는 박성연(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아들의 높은 학업적 성취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아들의 현재 학습상황이나 능력,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동의 성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격적인 행동과 규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 반면, 여아의 경우 양연숙과 길경숙(2009)의 연구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한 지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아버지가 유사한 수준의 교육열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에 관여를 하였더라도 여아가 남아에 비해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을 더욱 낮게 지각함으로써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변인들 간의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남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아들과 딸에 대한 각기 다른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는 최경희와 신동희, 이향연(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아에게는 적당한 관심과 기대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남아에게는 지나친 기대와 억압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부담감 등이 외현화된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아는 남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로 인해 남아의 과잉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문제로 삼는 빈도가 적은 반면, 여아의 경우 여자는 활동성이 낮은 놀이를 하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행동통제를 더욱 많이 받게 된다는 허정경(2017)의 연구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같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를 보이더라도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더욱 많이 나타나면서 학교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외현화 문제가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경우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통해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집단에 따라 영향력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영향력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둘째, 기존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이전 아동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을 다루는데 있어 대부분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횡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고조화되어 가고 있는 부모의 교육열이 자녀의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기석(201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을 직접 측정하였는데, 권재기와 정미경(2012)의 연구에서 부모의 실제 교육적 기대보다 이것을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추후연구에서는 아동이 측정한 부모의 교육열이 다른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을 하나의 전체 값으로 살펴보았는데, 적절한 교육열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교육열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마리아(2013)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의 수준에 따른 집단분류를 통한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 교육열과 간접적 교육열이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교육열이 아동의 발달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준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가지는 관심을 대화를 통해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녀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구를 하게 된다는 Cooper와 Christie(2005)의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부모의 높은 교육

열과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은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와 가정, 학교에서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열된 교육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머니의 교육열이 아버지의 교육열이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으뜸(2017)의 연구에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과정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부모님의 관심이 간섭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아동기에는 어머니의 교육열이 애정과 관심이라고 느꼈더라도 교육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자녀가 성장해가면서 이를 부정적인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에는 어머니가 애정과 관심을 토대로 교육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주도성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학업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며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교육열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에게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정신적·정서적·지적·신체적인 능력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 자녀가 위치한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양육태도와 대화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교육을 제공하기 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녀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과정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여아가 남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평균분석을 통하여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집단 분석을 통한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외현화 문제가 적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외현화 문제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대사회가 점점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교사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바라봄으로써 성차별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성역할을 내면화할 수 있다는 Deaux(1994)의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볼 때,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평등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성별에 관계없이 외현화 행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외현화 행동이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병서·김계수(2013).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권재기·정미경(2012). 학령후기 학교적응 프로파일과 관련된 개인, 가정환경 변인의 단기 종단적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아동교육, 21(3), 147-167.
- 권지영(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학생생활연구, 36, 375-394.
- 김마리아(2013). 부모의 교육적 기대수준이 자녀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117-139.
- 김영화(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4), 173-197.
- 김으뜸(2017). 전환기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 요인과 관계적 요인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설(2018).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연구. 발달지원연구, 7, 19-34.
- 김은진(2015). 부모의 학업비교가 청소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업열등감, 우울, 스마트폰 중독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357-381.
- 김종운·최미숙(2011). 중,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습동기 및 학습전략의 관계. 상담학연구, 12(5), 1645-1661.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호·김은경(1995). 여자 청소년의 비행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
- 김진경·김혜연(2013).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1(2), 173-186.
- 김홍석·심혜숙(2009). 자기조절학습과 부모학습관여형태에 따른 전환기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상담학연구, 10(4), 2321-2333.
- 나윤경·태희원·정인자(2007). 자녀사교육을 통한 모성구성과정: 평생학습자로서의 성인 여성에 대한 이해의 한 방식. 평생교육학연구, 13(4), 55-87.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수백(2010). 연구방법의 실제, 학지사.
- 박경남·김정미(2019). 부모지지와 자아요인, 정서조절,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연구, 25(2), 595-616.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지은·이주아·정혜민·최나야(2018). 아버지의 정서적 자녀가치에 따른 양육행동이 취학 전 후 남녀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9(5), 67-79.
- 박찬호·황명환(2019). 부모의 학업관여, 그림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67-97.
- 백승영·이승희(2014). 학교급과 성별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및 임상위험 차이. 정서·행동장애연구, 30(2), 208-232.
- 심미옥(2017). 교육열 이해를 위한 어머니 감정자본 개념의 유용성과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27, 99-134.
- 염정원·조한익(2016).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30(1), 195-223.
- 양연숙·길경숙(2009).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성취압력에 따른 성취동기와 성취에 관한 비교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8, 197-220.
- 우유라·노충래(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유복귀희(2003). 아동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정·김진옥(2016). 초등 전 사교육 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98.
- 이기석(2014).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학부모 교육열행동 특성 분석. 한국학부모학회, 1(1), 21-42.
- 이수현·황혜정(2014). 유아의 성과 주변 환경 변인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학습관여, 교사의 지도방법 및 가정과 교실의 문해환경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4), 177-203.
- 이순아·임선아(2019).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초등학교 전환기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30(1), 221-233.
- 이유경(2016). 부모의 기대에 대한 자녀의 인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일에 있어서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한 비교검토.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자료집, 388.
- 이정운·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태상(2013). 중학생의 문제행동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3), 345-360.
- 이태영·심혜숙(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6), 2273-2291.

- 이희은·문수백(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61-174.
- 장연심·조아미(2007).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4, 123-136.
- 제희선·이강훈(2019).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성별, 연령, 기질,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9(4), 31-60.
- 조경진·안선희(2015). 가정환경의 질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3), 229-239.
- 조혜미·김성실·임혜경·한성현·송미라·손부순(2007). 부모의 성취압력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위생학회지, 22(1), 67-74.
- 지성애·정대현(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차종천·오병돈(2012). 교육열망과 학습참여가 학업성취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공교육, 사교육,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4), 417-441.
- 채진영·권혜진(2010).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89-196.
- 최경일(2012).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보호요인의 매개효과.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14(3), 170-189.
- 최경희·신동희·이향연(2009). 과학교육에서의 성별 차이 현황과 해결 방안. 여성학논집, 25, 117-158.
- 최지영·양현주(2012).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초기 적응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265-286.
- 최진아·성지현(2018).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의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과 정당화: 유아의 성과 마음이론, 또래배제의 맥락과 놀이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3), 119-138.
- 통계청(2019).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 허정경(2017). 조부모부양가족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2), 279-287.
- 현주·이재분·이혜영(2003). 한국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혜선(2012).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의 매개효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K. J., & Minke, K. M. (2007). Parent involvement in education: Toward

- an understanding of parents' decision mak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0(5), 311-323.
- Barger, M. M., Kim, E. M., Kuncel, N. R., & Pomerantz, E. M. (2019).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nd children's adjust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5(9), 855-89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oper, C. W., & Christie, C. A. (2005). Evaluating Parent Empowerment: A Look at the Potential of Social Justice Evaluation in Edu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 107(10), 2248-2274.
- Coopersmith, S. (1981). *SEI, Self-Esteem Inventories*.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David, M. E., Ball, S. J., Davies, J., & Reay, D. (2003). Gender issues in parental involvement in student choices of higher education. *Gender and Education*, 15(1), 21-36.
- Deaux, K. (1994). *The Lenses of Gender: Transforming the Debate on Sexual Inequality* (Book). *Psychological Inquiry*, 5(1), 80-96.
- Goodman, R. (1997).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5), 581-58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ition. Pearson Prentice Hall. New Jersey.
-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Hau, K. T., & Marsh, H. W. (2004). The use of item parcel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Non-normal data and small sample siz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57(2), 327-35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rreman, A., Van Tuijl, C., Van Aken, M. A., & Dekovic, M. (2009). Predicting young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Interactions among effortful control, parenting, and child gender. *Merrill-Palmer Quarterly*, 55(2), 111-134.
- Keiley, M. K.,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0). A cross-domain growth analysi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during 8 years of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61-179.

- Magro, S. W., Utesch, T., Dreiskämper, D., & Wagner, J. (2019). Self-esteem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Support for sociometer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3(2), 118-127.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61-62.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Ybrandt, H., & Armelius, K. (2010). Peer aggression and mental health problems: Self-esteem as a mediator.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1(2), 146-163.

- 논문접수: 7월 24일 / 수정본 접수 8월 28일 / 게재 승인 9월 18일
- 교신저자: 김춘경,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kckyung@knu.ac.kr

Abstract

A Structural Analysis among Parents' Educational Enthusiasm, Children's Self-esteem,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 and School Adjustment: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Junghye Sung and Choonkyung Kim

The study's purpose is to examine how educational enthusiasm of parent, self-esteem and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 affect school adjustment and how these variables were related to children's gender. The data of this study is PSKC's 9th data by KICC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educational enthusiasm of father, self-esteem, externalized problem and school adjustmen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children's gender. Second, the influence of educational enthusiasm of father and externalized problem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children's gender. In the modern society where infinite competition is required in order to adapt to changes quickly, it i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s of the parents' high educational enthusiasm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have different influence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child. The findings can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the counseling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

Key words: educational enthusiasm of parent, self-esteem,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 school adjustment, multi-group analysis